

2016. 6. 10 금요일

대구환경공단 제11호

중 국 환 경 소 식 지

수석대표 최현상 (☎ +86 186-2606-1134 / chouhs9@hanmail.net)
부대표 김기곤 (☎ +86 186-2606-1194 / giraffeland@hanmail.net)
중국 강소성 의흥시 녹원로 501호 환보과기빌딩 B청사 403실. (☎:070-4137-8009)

1. 한 · 중 환경기업 간 기술교류회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 주옥봉 주임,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좌측에서 2번째), 이싱시 왕중소 시위서기, 대구환경공단 윤용문 이사장, 대구시 박동영 물기업지원팀장, 대구환경공단 이상대 미래전략처장 등

지난달 16일, 대한민국 환경대표단은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윤용문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기업인 등 36명이 이싱시를 방문, 이싱 환보과기공업원 빌딩에서 2016년 한중환보기술교류회 및 합작프로젝트 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이 행사는 이싱시와 대구시 양 도시간 심도 있는 합작과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삼는 장이 되었다.

중국측 주요인사로는 왕중소 이싱시위 서기, 주옥봉 이싱 환보과기공업 원 관리위원회 주임과 중국 이싱 환경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한중 환경기업 교류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을 추진해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양국의 환경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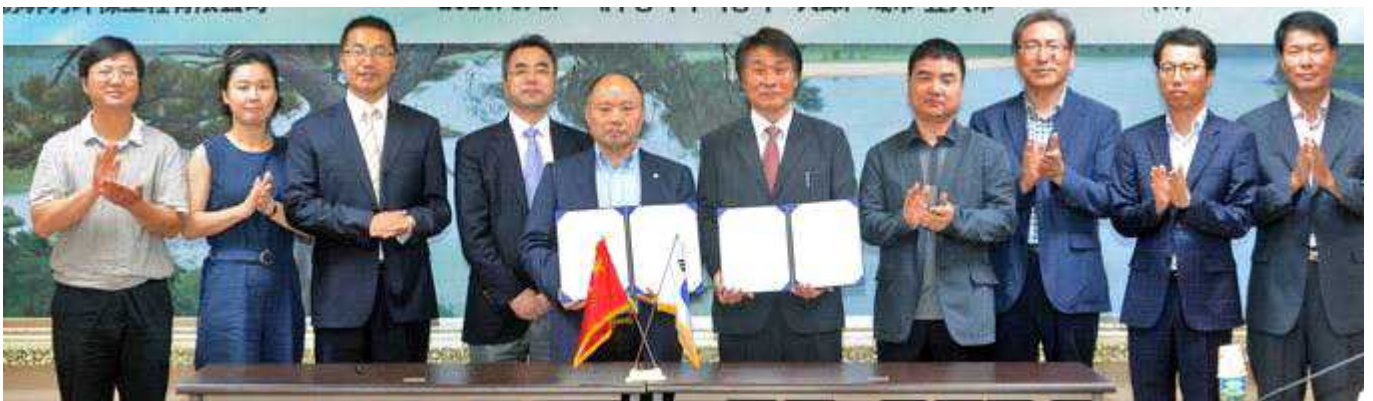
이번 교류회에서 문창 등 10개 한국기업이 기술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중국기업들의 한국 환경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 한·중 양국기업 간 19건의 기술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합작프로젝트 계약 1건과 업무협약(MOU) 5건이 체결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루 120ton의 고농도폐수를 오존으로 처리하는 데모플랜트를 한국 GE환경건설과 중국 강소박대가 합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환경기술에 관심을 가진 중국 기업과 한중 합작추진을 위하여 △환경플랜트 설계부문에 한국종합기술과 봉요그룹 △터보송풍기 생산업체인 뉴로스와 강소걸강 △저류조 시공업체인 문창과 신기원 △침출수 농축액처리업체인 (주)포웰과 강소신기 △인적교류로는 계명대와 호북이공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대구환경공단은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과 한·중 환경분야 협력을 위하여 TF팀 2명을 2014년 11월부터 이싱에 파견하고 있으며,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다.

2. 中 이싱환보과기공업원 관계자 및 기업인 대구시 방문

- 지금은 중국 진출 최상의 시기, 한국 물기업 적극 참여해달라 -
- 12억원 규모의 하천정화분야 12억원 규모의 합자회사 설립 계약체결 -



〈 대구시청에서 열린 합자회사(KC리버텍& 필립사) 체결식 후 기념촬영 장면 〉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 주지현 주임조리(보좌)와 강소필립유한공사 소중평 회장을 비롯한 중국 물산업 사절단이 대구시를 방문해 국내 생태하천 복원 전문업체인 (주) KC리버텍과 12억원 규모의 한·중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다. KC리버텍은 청계천 복원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참여한 생태하천 복원전문업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엔 대구환경공단과 <주>엔바이오컨스가 중국의 이싱환보과기공업원, 강소필립환보공정유한공사와 함께 자본금 4억위안(한화 720억원)의 한·중 합자회사를 설립 후 대구환경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국기업과 매칭을 지원한 결과이다. 대구환경공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거대한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를 방문한 이싱환과원 주지현 주임조리는 다음과 같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다.

“대구 수처리시설 견학 인상적, 유럽보다 저렴하고 품질 우수, 中 수질관리 산업시장 급성장, 대구와 환경병원 협력도 기대”

“이싱(宜興)은 싱가포르, 유럽 등 전 세계 20여개국과 물산업 관련 기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품과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중국내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 최근 더 많은 관심과 교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 등 물산업 선진국이나 세계 1, 2위 물산업을 가진 프랑스를 차치하고 1일 대구에서 한중 합자회사 설립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 이싱환보과기공업원 주지현 주임조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까지 한국이 중국 시장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진행속도가 좀 느렸던 것 같지만, 지금은 최상의 기회가 왔다. 추진속도가 빨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싱환보과기공업원은 중국의 최대 환경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 그는 최고 책임자인 원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공단 면적은 212km²로 대구 전체 면적(883km²)의 25%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본부는 이싱에 있지만, 중국 과학기술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는 국가급 기관이다. 이싱에 이런 공단이 들어선 이유는 인구 120만명의 소도시지만, 1천700개가 넘는 환경산업 관련 기업이 있고, 이들의 매출이 중국 전체 환경시장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현지 언론은 이싱을 중국의 ‘환경 수도’로 부르고 있다

주 주임조리는 한국 물산업 기업의 매력에 대해 “최근 한국의 환경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유럽과 대비해 가격 대비 품질은 훨씬 뛰어나다. 거기다 대구시와 대구환경공단의 열정이 뛰어나고, 물산업을 대구 중심산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산업 발전에 우리와 같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물산업의 미래에 대해 그는 “중국은 예전부터 환경 문제를 아주 중요시 했고, 지난해 신환경보호법 시행으로 각 지방정부에서도 엄격한 관리제도를 도입했다”며 “특히 지난해 수10조(水十條)가 시행된 이후에는 환경 분야에서도 특히, 수질분야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싱은 현재 한국의 여러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높은 기술을 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기업과의 합작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그는 앞으로 이싱환보과기공업원이 물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대구의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싱시 201km²의 수계처리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물기술 시범사업’에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대구가 선도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그는 전했다. 이 사업은 이싱에서 시작해 전 중국으로 보급할 전망이다.

그는 “국제적인 우수 기업과 인재, 기술을 한 곳에 모아 중국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병원’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가 선행적으로 분점을 맡아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대구를 찾은 주 주임조리는 “대구의 수처리시설과 환경기업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모범사례로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면 좋겠고, 더욱 많은 분들이 환경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거대한 환경산업시장에 적극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대구시와 이싱시가 교류가 활발해진 것은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와 이싱시가 한중교류의 기반을 만들고,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물주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주 주임조리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 수10조(水十條)란

중국 국무원에서 추진하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이다. 수질개선 목표와 주요지표 확정과 물환경관리에 관한 10개 주요정책을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까지 7대 중점 유역 수질개선 등 수질정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환경병을 치유하는 이상 중이환경병원 소개



中宜环境医院

Zhongyi Environment Hospital

내용

중이환경병원은 이상환보산업 클러스터를 토대로 하고 단지내의 국내외선진기술과 우세기업을 재 집결하여 환보산업그룹을 중견조직으로 삼아 PPP투자방식으로 국내외의 구역환경보호에 필요한 해결방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정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중국경제의 신상태에 기초한 환보산업의 혁신적인 조직형식이다.

기능

하나의 플랫폼 : 국내외의 선진적인 기술을 집결하고 환보산업에서의 세분화된 영역을 포괄한 설계, 시공, 운영, 서비스 등의 1스톱의 플랫폼이다.

하나의 브랜드 : 혁신적인 국내 첨단 환경서비스 브랜드이다.

하나의 싱크탱크 : 국제화된 선진적인 계획설계 이념으로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도시의 생태건설에 자문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제공한다.



+ 환경병원 총원

● 분원 합작의향

→ 국내전파범위

--- 국외전파범위



전략과 포석

- * 이성에 환경병원 총원을 설립하고 전국으로 확장하여 각 지역에 환경분원을 설립.
- * 중앙 아프리카 센터, 동남아센터, 상합조직 통해 국제시장에 진출.



4. 공지사항

- 중국기업과의 협력 또는 상담 등 개별 기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구환경공단과 중국TFT를 경유 또는 진행사항을 항상 공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전화 또는 메일)
- 이를 통하여 보다 더 양질의 현지 정보제공과 중국기업과의 매칭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